

서울시 물가구조의 특성분석과 정책방향

김범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서울시 물가구조의 특성분석과 정책방향

	요약	3
I.	서울시 물가의 주요 특징	4
II.	서울시의 소득계층별 물가	8
III.	서울시 물가불안 품목의 규명	11
IV.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	14

김범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02-2149-1276
kbs@si.re.kr

물가는 지역경제의 안정 여부를 진단하는 체온계 역할을 수행하고 서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다. 특히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민가계의 경우 지속적인 물가상승이나 높은 물가수준은 가계부담으로 연결되므로 서민물가를 지속적으로 안정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서울시 물가는 2011년 이후 안정세를 지속, 그러나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물가부담은 높은 편

서울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0년대 초반 3% 중반을 상회하다가 2011년 이후 2% 내외로 하락하고, 특히 2013년에는 2000년대 들어 처음으로 1%대에서 안정되었다. 또한 2011년 이후 생활물가의 안정에는 보육시설이용료, 유치원납입금 등 무상보육 관련 항목이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의 물가변동성은 전국보다는 낮지만, 2001년 이후 전반적으로 확대되어 시장의 물가충격 흡수력이 다소 낮아지고 있다. 특히 서울의 소득수준별 물가지수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일수록 물가지수가 상대적으로 더 높고, 물가상승률도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높아 저소득층의 물가부담이 더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서울시 물가불안은 주로 전세가격, 학원비, 식료품 등에서 발생

서울시 가계의 소비지출비중, 물가상승률, 가격변동성 등을 고려해 물가불안 품목을 규명한 결과, 주택임차료 등 주거비와 사교육비, 식료품 등으로 나타났다. 주택임차료는 전세가격 상승과 공동주택관리비 상승이, 사교육비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보습학원비가 물가불안의 주요인이다. 중·고등학생 학원비가 물가불안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서울의 사교육비 지출 규모와 사교육 참여율이 다른 도시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식료품의 물가불안은 빵 및 곡물, 과일 등이 주도하는데, 이는 주로 낮은 곡물 자급률과 유통구조의 왜곡 등에 기인한다.

중점 물가모니터링 품목의 선정과 주기적 관리 등 서민물가 안정화 정책을 추진

서울시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첫째, 소비비중과 가격상승률이 높고 가격변동성이 큰 품목을 대상으로 중점 물가모니터링 품목을 선정해 주기적으로 관리한다. 둘째, 주거비 안정을 위해 가구특성 등을 고려해 소형주택 등 시장수요를 반영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공동주택관리비의 비합리적인 인상 억제와 관리비 절감을 유도한다. 셋째, 사교육비 안정을 위해 방과 후 프로그램의 내실화와 사회적 기업을 통한 사교육시장의 다양화를 추진한다. 넷째, 농산품가격 안정을 위해 산지 직거래와 온라인 거래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I. 서울시 물가의 주요 특징

서울시 물가는 2011년 이후 안정세를 지속

2011년 이후 서울시 물가는 2% 내외에서 안정세를 유지

- 서울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0년대 초반 3% 중반을 상회하다가 2011년 이후 2% 내외로 하락하고, 특히 2013년에는 2000년 들어 처음으로 1%대에서 안정
- 최근 서울시 소비자물가 상승률 : 2011년 3.8% → 2012년 2.5% → 2013년 1.4%
- 서울시 소비자물가의 기간별 평균 상승률 : 2001~2005년 3.6% → 2006~2010년 2.9% → 2011~2013년 2.6%
- 서울의 근원물가(Core Inflation) 상승률도 2011년 3.2%에서 2012년 2.0%, 2013년에는 1.6%로 하향 안정화
- 근원물가는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의한 물가 변동분을 제외하고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곡물 이외의 농산물과 석유류 품목을 제외하고 작성한 지수
- 서울시 근원물가의 기간별 평균 상승률 : 2001~2005년 3.2% → 2006~2010년 2.6% → 2011~2013년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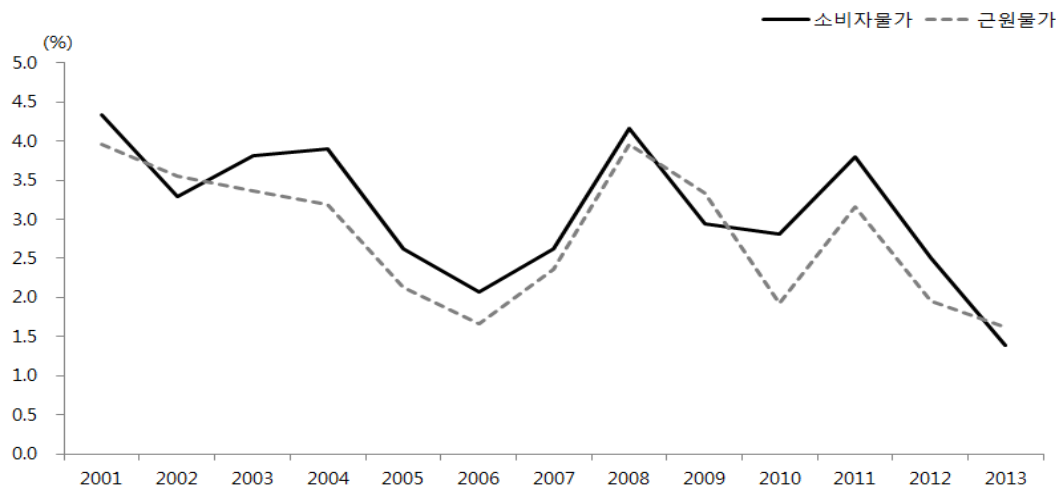


그림 1 서울의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 추이

주 : 서울시 근원물가는 통계청에서 제공되지 않으므로 통계청 작성 방법에 의거해 별도 작성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KOSIS, 해당 연도

생활물가가 소비자물가보다 더 하향 안정화

최근 서울시의 생활물가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하회

- 서울의 생활물가 상승률은 2013년 0.8%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6%p 하회
- 생활물가지수는 가계의 구입빈도가 높고 지출비중도 높아 가격변동에 민감한 총 142개 품목으로 구성된 일종의 ‘장바구니’ 물가지수
- 2000년대 중반 이후 생활물가와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격차가 축소되는 추세
- 서울시 생활물가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격차 : 2001~2005년 0.7%p → 2006~2010년 0.4%p → 2011~2013년 -0.4%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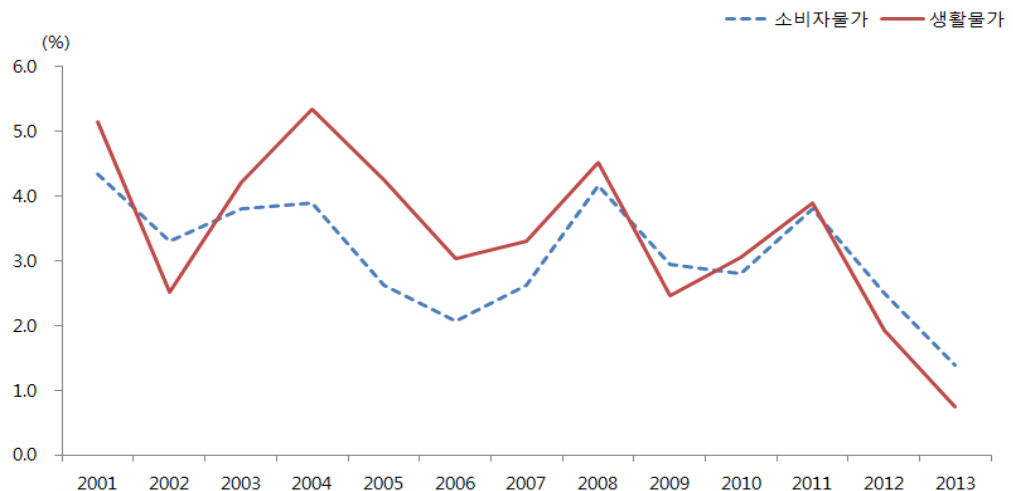


그림 2 서울의 소비자물가 및 생활물가 상승률 추이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KOSIS, 해당 연도

2011년 이후 생활물가 안정화는 무상보육 관련 항목이 크게 기여

- 2011~2013년 중 생활물가 안정에 보육시설이용료, 유치원납입금, 학교급식비 등 3대 품목이 평균 63.5% 기여
- 2011~2013년 중 보육시설이용료, 유치원납입금, 학교급식비 등의 서울시 생활물

가에 대한 기여율은 각각 -17.2%, -11.9%, -10.6%로 생활물가 품목 중 가장 기여

- 특히 이들 상위 3대 품목은 모두 무상보육 관련 항목으로 무상보육 등 복지정책 확대가 생활물가 안정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
- 무상보육·급식의 확대 실시는 2013년 서울시 생활물가와 소비자물가를 각각 0.48%p, 0.25%p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
- 이밖에 이동전화료, 돼지고기, 조제약, 고등학교납입금, 사립대학교납입금, 참외, 세택세제 등이 2011~2013년 중 생활물가 안정을 주도

표 1 2011~2013년 중 서울시 생활물가 하락을 주도한 상위 10대 품목

(단위 : %)

구분	가중치 비중	주요 품목별 가격 상승률			생활물가에 대한 기여율	
		2011년	2012년	2013년	2011~13년	2013년
생활물가지수	100.0	3.9	1.9	0.8	100.0	100.0
보육시설이용료	0.67	3.0	-36.2	-29.0	-17.2	-25.7
납입금(유치원)	1.15	2.2	-7.3	-19.5	-11.9	-29.6
학교급식비	0.50	-22.3	-34.2	-12.4	-10.6	-8.2
이동전화료	2.05	-3.0	-4.8	0.0	-5.5	0.0
돼지고기	1.44	31.2	-13.9	-8.0	-5.0	-15.2
조제약	1.09	-0.9	-10.4	-5.9	-4.9	-8.5
납입금(고등학교)	1.34	-10.4	-2.2	0.0	-1.8	0.1
납입금(사립대학교)	2.84	2.1	-1.7	-1.0	-1.8	-3.7
참외	0.21	10.4	-8.9	-15.9	-1.6	-4.4
세택세제	0.35	7.3	3.7	-13.6	-1.6	-6.2

주 : 특정 품목의 생활물가에 대한 기여율은 각 생활물가의 구성 품목이 전체 생활물가 증감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모든 구성 품목의 기여율 합은 100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KOSIS, 해당 연도

서울의 물가변동성은 전국보다 낮지만 이전에 비해 확대

서울의 물가변동성은 2001년 이후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추세

- 서울의 소비자물가 변동성은 2001~2005년 0.73에서 2006~2010년 0.82, 2011~2013년 중 1.07로 확대
- 물가의 변동성이 높다는 것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소비자 감시 미흡, 시장의 낮은 물가충격 흡수력 등을 의미
- 서울의 소비자물가 변동성을 전국과 비교하면, 추이는 유사하지만 그 수준은 전국보다 다소 낮은 편
- 서울과 전국의 소비자물가 변동성 격차 : 2001~2005년 0.04p → 2006~2010년 -0.19p → 2011~2013년 -0.24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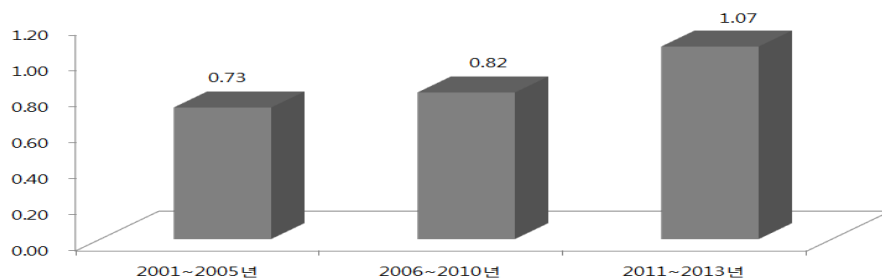


그림 3 소비자물가의 변동성 추이

주 : 소비자물가 변동성은 기간 내 분기별 소비자물가의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의 표준편차로 산출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KOSIS, 해당 연도

특히 신선식품물가의 변동성이 매우 큰 편

- 2001~2013년 중 서울의 신선식품물가의 변동성은 8.26으로 소비자물가 변동성 (0.93)을 8배 이상 상회
- 2001~2013년 중 서울의 생활물가 변동성도 1.40으로 같은 기간의 소비자물가 변동성을 0.47p 상회

II. 서울시의 소득계층별 물가

물가부담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더 높은 편

소득수준별 물가부담을 파악하려면 소득계층별 물가지수가 필요

- 가계의 평균적인 소비행태를 기준으로 작성된 소비자물가지수로 소득계층별 물가수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
- 소비자물가지수는 소비자가 일상 소비활동에 쓸 용도로 구입하는 개별 상품 가격에 가계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를 감안해 가중 평균한 종합적인 가격 수준
- 소득수준별로 물가상승 수준을 파악하려면 소득계층별 물가지수의 작성이 필요
- 일반적으로 소득수준별로 소비지출 행태가 다르기 때문에 소득계층별로 물가상승의 수준이 다르고, 이로 인해 물가상승에 대한 체감도도 상이

소득계층별 물가지수 작성방법 및 자료집합

- 소비자를 소득기준으로 계층별로 구분
 - 소득계층은 균등화 소득을 기준으로 10%씩 각 분위별로 할당하여 소득 10분위를 구분
 - 균등화소득 = $\frac{\text{가구소득}}{\sqrt{\text{가구원수}}}$
 - 10분위 소득계층은 다시 저소득층(1~3분위), 중산층(4~8분위), 고소득층(9~10분위)으로 그룹화
 - 소득계층별·소비품목별 소비비중을 구한 후, 이를 활용해 각 소비계층의 품목별 가중치를 산출
 - 소득계층별 품목별 가중치와 품목별 소비자물가를 활용해 소득계층별 물가지수를 작성
 - 2005년, 2010년 각 기준시점에 따라 구성품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2005년 기준연도로 산출된 지수를 접속계수를 활용해 변환
 - 변환 방식 : $I_t^{10} = I_t^{05} \cdot C^{05}$
- 여기서, $C^{05} = \frac{I_{10}^{10}}{I_{10}^{05}}$ (2005년 기준지수의 2010년 기준지수 접속계수),
 I_t^{05} = 2005년 기준 t 년도 지수, I_t^{10} = 2010년 기준 t 년도 지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물가지수 수준은 상승

- 서울의 소득계층별 물가지수를 산출한 결과, 저소득층의 물가지수 수준이 고소득층보다 더 높은 것으로 분석
- 2013년 서울시 저소득층의 물가지수는 106.7로 중산층(106.3) 및 고소득층(106.0)

의 물가지수 수준을 상회

- 특히 최저 소득계층인 1분위 물가지수는 106.9로 모든 소득계층에서 가장 높은 반면, 최상위 소득계층인 10분위 물가지수는 105.9로 가장 낮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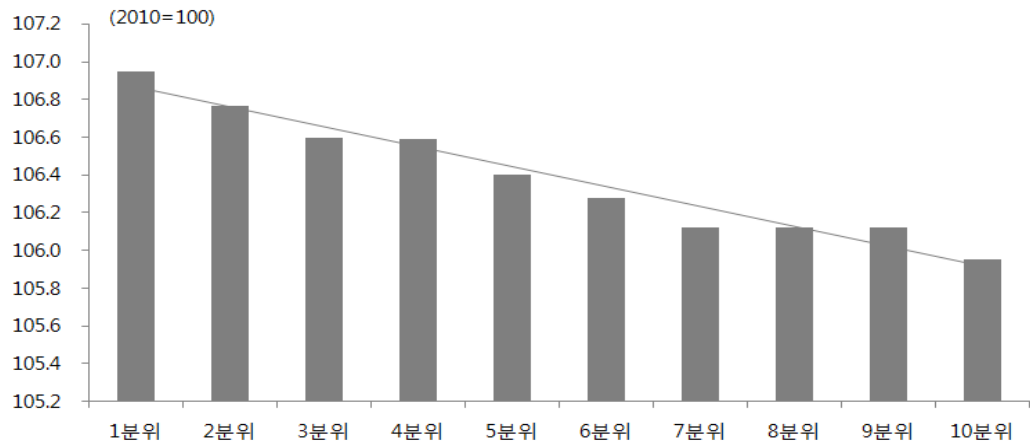


그림 4 2013년 서울시 소득분위별 물가지수

자료 : 가계소득동향, 2005, 2008,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2013, 통계청

- 2005년 이후 소득계층별 물가지수를 기간별로 보아도 유사
- 2005~2009년 중 서울의 소득계층별 물가지수 평균을 보면, 저소득층 물가지수가 90.6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중산층(90.4), 고소득층(90.3) 등의 순
- 2010~2013년 중 서울의 소득계층별 물가지수 평균도 저소득층(104.0), 중산층(103.8), 고소득층(103.7) 등의 순

물가상승률도 전반적으로 저소득층에서 더 높게 발생

- 서울의 소득계층별 물가상승률도 전반적으로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높아, 저소득층의 물가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시사
- 2010~2013년 중 서울의 저소득층 평균 물가상승률은 2.41%인 반면, 중산층과 고소득층은 각각 2.29%, 2.22%

- 특히 소득 최하위 계층인 소득 1분위의 물가상승률이 가장 높고, 최상위 계층인 소득 10분위의 물가상승률이 가장 하위
- 2010~2013년 중 소득 1분위의 평균 물가상승률은 2.46%로 소득 10분위의 물가상승률(2.19%)을 0.27%p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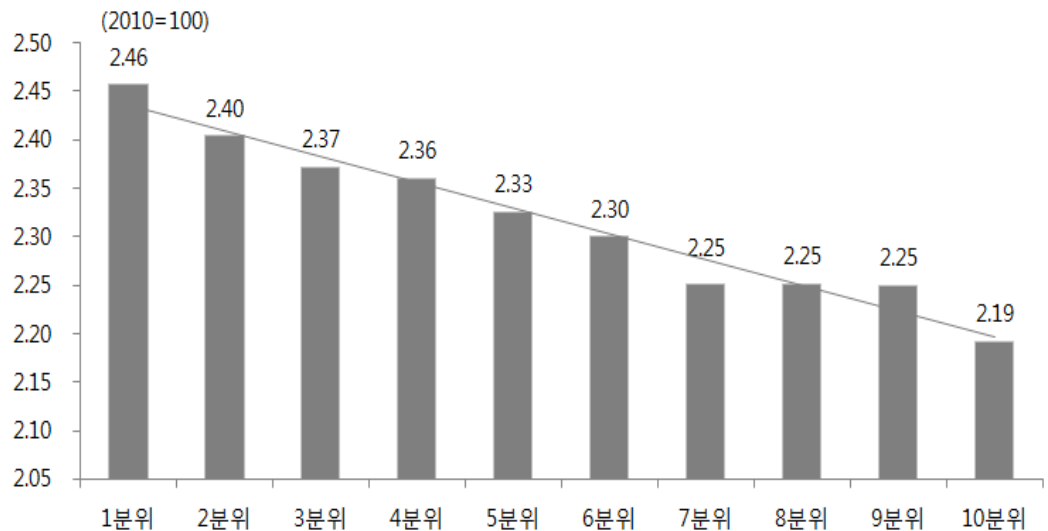


그림 5 2010~2013년 중 서울시 소득분위별 평균 물가상승률

자료 : 가계소득동향, 2005, 2008,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2005~2013, 통계청

- 소득계층별 물가상승률 차이가 발생하는 주요인은 소비지출패턴 차이(가중치 차이)와 해당 품목의 가격변동 차이가 복합적으로 작용
- 저소득층은 주로 식료품, 주거·광열·수도 등에서 상대적으로 소비지출비중이 큰데, 이들 품목의 가격상승이 저소득층의 높은 물가상승률을 유발
-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경우 지출비중이 큰 품목들의 물가상승세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도 소득계층별 물가상승률 격차를 유발하는 요인
- 이러한 분석결과는 물가안정이 서민생활과 직결된 품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특히 최저생계비 산정 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는 소득계층별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

Ⅲ. 서울시 물가불안 품목의 규명

소비비중, 물가상승률, 가격변동성 등을 고려해 불안품목을 규명

분석 결과, 물가상승 기여도와 변동성이 물가불안 품목 규명에 가장 적합

- 물가불안 품목은 물가상승 시 서민가계에 부담이 되고 경제의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큰 품목이며, 이는 3가지 분석방식으로 규명 가능
- 즉, 개별 품목의 소비비중과 물가상승률, 개별 품목의 소비비중과 가격변동성, 또는 개별 품목의 물가상승 기여도와 가격변동성의 대소를 기준으로 규명
- 물가 기여도와 가격변동성 기준으로 선별된 후보군 중에서 서울시 정책을 통해 물가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품목을 서울시 물가불안 품목으로 선별
- 3가지 분석방식의 결과를 보면, 다소 차이는 있으나 종합적으로 볼 때 물가상승에 대한 기여도와 가격변동성 기준이 물가불안 품목 규명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
- 물가 기여도와 가격변동성 기준으로 선별된 중점 모니터링 후보군이 21개로 가장 많고, 특히 소비비중과 물가상승률 기준으로 선별된 후보군을 모두 포함
- 주요 품목군은 주택임차료 등 ‘주거비’, 학원 및 보습교육 등의 ‘사교육비’, 빵 및 곡물, 과일 등의 ‘식료품’

표 2 소분류 품목의 모니터링 품목 후보군의 유형화 과정

분류 기준	모니터링 품목 후보군
소비비중과 물가상승률 (11개 품목)	주택임차료, 학원 및 보습교육, 개인 운송장비 연료 및 윤활유, 가스, 빵 및 곡물, 전기, 여자의류, 도로 여객수송, 과일, 캐주얼의류, 기타 주거 관련 서비스
↓	↓
소비비중과 가격변동성 (19개 품목)	음식 서비스, 학원 및 보습교육, 전화 및 팩스 서비스, 개인 운송장비 연료 및 윤활유, 고등교육, 가스, 빵 및 곡물, 의료 서비스, 의약품, 채소 및 해조, 여자의류, 운송장비, 도로 여객수송, 기타 서비스, 개인용 전기용품 및 미용용품, 주택임차료, 육류, 전기, 과일
↓	↓
물가 기여도와 가격변동성 (21개 품목)	음식 서비스, 학원 및 보습교육, 개인 운송장비 연료 및 윤활유, 가스, 빵 및 곡물, 전기, 여자의류, 과일, 캐주얼의류, 이·미용 및 미용시설, 단체여행, 우유·치즈 및 계란, 철도 여객수송, 기타 식료품, 상하수도료, 가구 내 고용 및 가사 서비스, 주택임차료, 도로 여객수송, 기타 주거 관련 서비스, 남자의류, 과자·빙과류 및 당류

서울시 물가불안은 주로 전세가격, 학원비, 식료품 등에서 발생

주택임차료는 전세가격 상승과 공동주택관리비 상승이 주요인

- 주택임차료의 물가불안은 전세의 높은 지출비중과 가격상승 등이 주요인
 - 서울의 물가(1,000)에서 전세 가중치는 109.3으로 주택임차료 가중치의 72.8%
 - 전세와 월세의 물가상승률은 모두 평균 수준을 상회하지만, 특히 전세의 물가상승률이 2011~2013년 중 평균 4.2%로 높은 편(월세는 2.7%)
 - 서울의 전세가격 상승은 주택 매매가격 하락세 지속에 대한 기대심리 확대로 임대수요가 확대된 것이 주요인
- 공동주택관리비, 쓰레기봉투료, 정화조 청소료로 구성되는 서울의 기타 주거관리 서비스의 물가불안은 공동주택관리비의 높은 물가상승이 주요인
 - 이들 품목 중 공동주택관리비의 지출비중이 가장 크고, 물가상승률과 가격변동성도 모두 높은 실정(2010~2013년 중 공동주택관리비 물가상승률 5.0%)
 - 특히 공동주택관리비는 각 공동주택별로 관리품목 및 비용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일괄적인 가격관리 및 안정화가 어려운 실정

사교육비의 물가불안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보습학원비가 주요인

- 서울의 학원 및 보습교육 지출비중의 53.4%는 중·고등학생 학원비이며, 이들 품목의 물가상승률과 가격변동성이 높은 편
 - 2010~2013년 중 중학생 및 고등학생 학원비의 물가상승률은 각각 3.8%, 6.2%
- 중·고등학생 학원비가 물가불안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서울의 사교육비 지출규모와 사교육 참여율이 높기 때문
 - 2012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이 31만 2천 원으로 16개 시·도 중 최고 수준이고, 사교육 참여율도 73.5%로 16개 시·도 중 대구(75.4%)에 이어 2위 수준

식료품의 물가불안은 빵 및 곡물, 과일 등이 주도

- 빵 및 곡물, 과일 등은 지출비중, 물가상승률 및 기여도, 가격변동성 모두 평균 수준 이상이고, 개별 품목별로 물가불안을 주도하는 품목이 매우 다양
- 빵 및 곡물은 주로 쌀, 콩, 라면, 두부, 빵 등이 물가불안을 주도
 - 빵 및 곡물 품목의 소비자물가(1,000) 내 가중치는 22.4이며, 2011~2013년 중 물가상승률과 가격변동성은 각각 6.1%, 3.54
 - 쌀은 빵 및 곡물 내 소비비중이 26.3%로 가장 높을 뿐 아니라 2011~2013년 중 평균 8.8% 가격 상승
- 과일은 주로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밤, 감, 귤, 수박, 바나나 등이 물가불안을 주도
 - 과일 품목의 소비자물가(1,000) 내 가중치는 15.8이며, 2011~2013년 중 물가상승률과 가격변동성은 각각 6.9%, 10.32
 - 과일 중에서 소비비중이 가장 큰 사과의 물가는 2011~2013년 중 7.5% 상승하고, 가격변동성도 10.09로 높은 편
- 식료품 가격불안의 주요인은 낮은 곡물 자급률과 유통구조의 왜곡
 - 미국, 독일, 영국 등의 식품 자급률은 대부분 100%를 상회하지만, 2011년 한국의 곡물 자급률은 23.1%로 낮아 곡물가격 상승 시 식료품 가격상승을 유발
 - 특히, 식료가공품의 원재료이면서 주요 식재료인 농산물은 복잡한 유통구조를 거치면서 유통마진이 매우 높아지고, 이는 최종가격의 상승압력으로 작용

표 3 주요 농산물의 유통마진

(단위 : %)

	쌀		사과		귤		대파	
	A경로	B경로	A경로	B경로	A경로	B경로	A경로	B경로
농가수취율	79.1	78.5	57.3	55.3	48.0	48.5	37.6	44.7
유통마진	21.0	21.6	42.7	44.7	52.0	51.6	62.4	55.3

주 : 1. A경로는 대형유통업체를 경유하지 않는 전통 유통방식(생산자→도매상→소매상→소비자), B경로는 하나로마트 등 대형유통업체 경유방식(생산자→산지유통인→도매상→소매상→소비자/생산자→대형유통→대형마트→소비자)

2. 2010~2011년 지역 구분 없이 평균 수치를 활용

자료 : 농수산물유통정보, 2010~2011, 품목별 유통실태정보

Ⅳ.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

서민물가를 안정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추진이 필요

- 물가는 지역경제의 안정 여부를 진단하는 체온계 역할을 수행하고 서민생활과 직결
 - 지역 내 가계의 생활수준 및 상태를 가늠할 때는 물가수준을 반영한 소득을 기준으로 한 구매력의 대소로 파악
 - 특히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민가계의 경우 지속적인 물가상승이나 높은 물가수준은 가계 부담으로 직결
-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중점 물가모니터링 품목의 선정과 관리, 주거비 부담 완화, 사교육비 안정화, 농산품 가격관리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 등이 필요

주요 추진 전략

주요 과제	추진 전략
중점 물가모니터링 품목의 선정과 주기적인 관리	- 품목별 소비비중, 물가상승률, 가격변동성 등을 활용해 구조적 물가불안 품목을 선별 - 구조적 물가불안 품목의 주기적 모니터링과 관리
주거비의 안정화	- 전세수요 충족을 위한 공급물량 확대 및 세입자 권익보호 등을 통한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 - 공동주택관리비의 비합리적인 인상 억제 및 관리비 절감 유도
사교육비의 안정화	- 방과 후 프로그램 내실화를 통한 공교육의 질 향상 - 돌봄, 보육, 교육 분야의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육성 등을 통해 사교육시장을 다양화하여 사교육비 안정화
농산품의 가격안정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	- 농수산물 산지 직거래 활성화 및 온라인 거래 확대 등

중점 물가모니터링 품목의 선정과 주기적인 관리

서울시 중점 물가모니터링 품목은 총 121개 품목을 중심으로 선정

- 유가, 공공요금 등과 같은 전국적인 물가불안 요인 외에도 서울 고유의 유통구조, 시장특성에 따라 물가불안을 초래하는 품목이 다수 존재
- 주거비, 사교육비 등은 전국에 비해 서울 고유의 물가특성이 나타나는 만큼 시 차원에서 물가안정화 방안이 필요
- 특히 품목별로 소비지출비중, 물가상승률, 가격변동성 등을 활용해 물가불안 품목을 선별하여 이들 품목의 주기적인 물가동향 모니터링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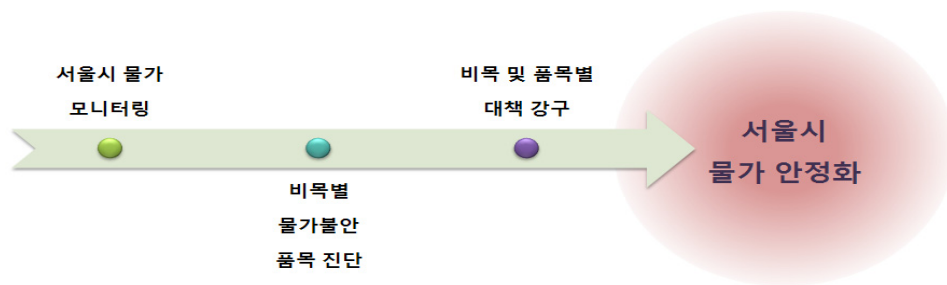


그림 6 서울의 중점 물가모니터링 품목의 선정과 관리

- 서울의 물가상승률에 대한 기여도와 가격변동성을 기준으로 물가불안 품목을 유형화한 결과, 소분류 기준으로는 21개 품목이 중점 물가모니터링 품목으로 선별
- 소분류 기준 21개 품목은 음식 서비스, 빵 및 곡물, 과일, 우유·치즈 및 계란, 주택임차료, 학원 및 보습교육 등
- 이를 481개 세분류 품목을 대상으로 물가상승에 대한 기여도와 가격변동성을 기준으로 유형화를 다시 하면, 총 121개 품목이 중점 물가모니터링 품목으로 선별
- 121개 품목은 표 4의 쌀, 콩, 라면, 사과, 양파, 설령탕, 커피, 전세, 월세, 상하수도료, 공동주택관리비, 전기료, 지역난방비, 침구, 가사도우미료, 한방약, 외래진료비, 학원비, 휘발유 등

표 4 서울의 세분류 기준 중점 물가모니터링 품목

소분류 품목	세분류 품목	소분류 품목	세분류 품목
빵 및 곡물	쌀, 콩, 혼식곡, 라면, 두부, 빵	의료용품 및 치료기기	위생대
육류	돼지고기	의료 서비스	외래진료비
어류 및 수산	갈치, 생선통조림	기타 의료 서비스	치과진료비
우유, 치즈 및 계란	우유, 발효유, 달걀	병원 서비스	입원진료비
과일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밤, 감, 굴, 수박, 바나나	개인 운송장비 연료 및 윤활유	휘발유, 경유, LPG(자동차용)
채소 및 해조	당근, 고구마, 양파, 미역	철도 여객수송	전철료
과자, 빙과류 및 당류	아이스크림, 비스킷, 스낵과자	도로 여객수송	시내버스료
기타 식료품	고춧가루, 간장, 고추장, 김치, 밀반찬, 즉석식품	항공 및 수상 여객운송	국제항공료
커피, 차 및 코코아	커피	기타 여객운송	이삿짐운송료
생수, 청량음료, 과일주스 및 채소주스	과일주스, 탄산음료	오락 및 스포츠 서비스	골프장이용료
담배	담배(수입)	문화 서비스	사진촬영료
남자의류	남자정장, 남자외투, 남자내의	서적	서적
여자의류	여자정장, 여자외투, 원피스, 여자하의	미·이용 및 미용시설	목욕료, 찜질방이용료, 미용료
캐주얼의류	점퍼, 티셔츠, 청바지, 운동복	단체여행	단체여행비(국내), 단체여행비(해외)
아동복·유아복	아동복	학원 및 보습교육	학원비(초등학생), 학원비(중학생), 학원비(고등학생), 음악학원비, 미술학원비, 운동학원비, 가정학습지
신발	남자구두, 여자구두, 운동화		
주택임차료	전세, 월세		
주거시설 유지·보수	설비수리비	성인학원 및 기타 교육	취업학원비, 외국어학원비, 운동강습료
상하수도료	상수도료, 하수도료	음식 서비스	김치찌개백반, 된장찌개백반, 비빔밥, 설렁탕, 해물찜, 해장국, 쇠고기(외식), 돼지갈비(외식), 삼겹살(외식), 오리고기(외식), 냉면, 칼국수, 생선회(외식), 자장면, 돈가스, 피자, 커피(외식), 김밥, 맥주(외식), 구내식당식사비
기타 주거 관련 서비스	공동주택관리비		
전기	전기료		
가스	도시가스		
기타 연료 및 에너지	지역난방비		
가정용 섬유제품	침구		
주방용품 및 가정용품	부엌용 용구		
가구 내 고용 및 가사 서비스	가사도우미료	개인용 전기용품 및 미용용품	로션, 선크림, 영양크림
의약품	한방약, 건강기능식품	기타 개인용품	장신구, 가방

주거비의 안정화

전세 공급물량 확대 및 세입자 권익보호 등을 통해 전세시장을 안정화

- 서울의 가구특성을 고려해 소형주택 등 시장수요 반영을 통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물량을 확대
 - 서울시 가구의 약 1/4인 23.9%는 1인가구로 구성(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향상을 통해 주택시장에서 수요자의 신뢰를 확보
- 전·월세보증금 지원, 세입자 권익보호 등 공공서비스의 기능을 강화
 - 서민가계의 생활안정을 위한 전·월세보증금 지원, 임대차 상담, 분쟁 조정 등 주택 임대차 관련 공공서비스의 기능을 강화

공동주택관리비의 비합리적인 인상을 억제하고 관리비 절감을 유도

- 공동주택의 관리비 비교, 회계자료 등의 서비스 제공을 더욱 강화
 - 공동주택관리비 관련 회계서류를 일정 기간 보관하고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
- 또한 철저한 시설관리 등의 홍보를 통해 공동주택관리비 절감을 유도
 - 정기적인 급수관 청소 등을 통한 공동수도료 절감, 실외기의 먼지청소 등을 통한 공동전기료 절감 등

사교육비의 안정화

방과 후 프로그램 내실화와 사회적 기업을 통한 사교육시장의 다양화

- 보습학원비가 주요 물가상승요인이므로 학교 보충교육의 질적 강화가 요구
- 방과 후 학교 지원예산을 확대하여 방과 후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수준별 방과 후 학습’, ‘EBS 자율학습기기’ 등의 지원과 저소득층 학생용 방과 후 돌봄을 강화
- 특히 현재 강동구 등 3개 자치구에서 자치구 사업으로 실시 중인 ‘지역창의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를 확대

강동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 2010년 11월 30일 설립된 기관으로 교육기관, 학생 및 학부모가 모두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설립
 - 자기주도형 학습활동 지원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지원
 - 진로, 학습에 관한 상담지원과 저소득층 자녀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
 -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진로 프로그램, 진학 프로그램, 학부모를 위한 프로그램, 상담 프로그램, 체험활동 프로그램, 입학설명회 등의 프로그램 운영

출처 : 강동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http://slc.gangdong.go.kr/open_content/

- 현재 돌봄, 보육, 교육 분야에서 활동 중인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 사교육시장을 다양화
- 예비 사회적 기업인 사단법인 ‘서경뮤직스쿨’은 지역 내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학교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예비 사회적기업 ‘서경뮤직스쿨’의 방과 후 학교

- 2011년 설립된 서경대학교 주도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 주도 방과 후 학교 (예비)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에 선정
 - 2012년 3월 성북구 문예체 멘토링 교육지원사업 ‘화음을 만들어요’ 연계사업 실시
 - 총 19개교 800여 명 대상 방과 후 학교 음악교육을 실시
 - 2013년 3월 23개교(초·중등) 대상 방과 후 학교 음악교육을 실시
 - 2013년 4월 성북구 문예체 멘토링 교육지원사업 ‘살짝 활짝 단짝’ 음악분야 연계교육 실시

출처 : 서경뮤직스쿨 홈페이지, <http://www.musicsku.com/main/main.php>

농산품의 가격안정을 위한 유통구조를 개선

산지 직거래 활성화, 온라인 거래 등을 통해 유통구조를 개선

- 일반 소비자들의 도·농 간 농수산물 직거래 유통경로 확대를 위해 농수산물 등 먹거리 관련 소비자협동조합 등의 홍보 및 지원을 통해 도·농 간 직거래 운동을 장려
- 현재 ‘한살림’, ‘쌈지 농부로부터’와 같은 생활협동조합 형태의 유통망을 통해 생산자·소비자 간 직거래가 일부 작동
- 산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고정 장소를 마련해 매월 혹은 매 계절별로 직거래 참여 희망 산지 및 참여 희망 업체를 선별한 후 서울시민과 산지 간 농수산물 직거래 창구를 확대 구축
- 서울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관리·운영하는 서울시농수산물공사 등을 통해 농수산물식품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 가격을 유지
- 서울은 가락시장, 양곡시장 등 전국유통망을 가진 대형 도매시장이 입지하여 각 산지의 수급물량에 맞춘 도·소매가가 형성되는 시장거점으로서 중요한 역할 수행
- 유통품목의 경매정보, 등급별 가격, 거래 가격 등 시장 정보의 제공과 더불어 대형 도매시장을 활용해 유통망을 효율적으로 관리
-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서울시 등이 산지 생산비를 보장하는 수준에서 결정한 가격으로 미리 선구매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소비비중이 높은 필수 농수산물의 공급 및 수요 급증을 미리 예방하는 것도 대안
- 또한 서울시 중소유통물류센터 유통망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농수산물 유통망 개선과 더불어 영세소매업의 판매 가격 안정화를 도모